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정보통신업의 경영성과와 이익의 질

박수경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Business performance and earnings quality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Su-Gyeong Park

Part-time instruct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이 상승한 정보통신업 기업을 대상으로 팬데믹 선언 전·후의 경영성과와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영성과는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의 4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이익의 질은 Dechow and Dichev(2002) 모형과 Francis et al.(2005)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잔차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적인 경영성과 지표인 ROA는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이후 기간이 상승하였지만, 유동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 또한 ROA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기간이 이전 기간에 비하여 이익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업 기업의 이익 수준과 이익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은 악화하고 있으므로 눈앞의 위기를 넘겼던 기업들이 당장 부채를 상환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경영성과, 이익의 질, 정보통신업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business performance and earnings qualit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whose sales increased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For this, 4 indicators of ROA, growth potential, liquidity, and stability are used for business performance, and for earnings qualit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iduals measured by the Dechow and Dichev(2002) model and Francis et al.(2005)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OA, a representative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 increased after the period compared to the period before the pandemic, but liquidity was rather deteriorated. As for the quality of earnings, it was confirmed that earnings sustainability is maintained in the post-pandemic perio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similar to ROA. Overall, the profit level and earnings qua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mpanies seemed to be improving, while liquidity was deteriorating. This confirms that companies that have overcome the immediate crisis are not ready to pay off their debts right away. Therefore, it suggests that companies need restructuring to reduce their increased debt from the time the COVID-19 subsides.

Key Words : COVID-19, Pandemic, Business performance,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Corresponding Author : Su-Gyeong Park(dorozor@daum.net)

Received August 10,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August 26,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2019년 12월에 즈음하여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해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1]. 우한시에서는 12월에 들어 총 27건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보고되었고, 폐렴 환자 대부분은 우한시 장한(江漢)구 화난(華南) 해산물 시장의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회사 업무로 우한시를 방문하였던 36세 중국 국적 여성이 2020년 1월 7일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2].

이를 기점으로 국내 경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 품질(특히 KF94) 사태로 국내 마스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후 손 소독제와 세정제 등의 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3].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산과 교육 분야 원격 수업으로 인한 언택트 워크(untact work, 비접촉 업무) 분야의 성장이다. 기업용 정보기술 솔루션 업체인 '더존비즈온'을 비롯하여 원격지원·제어 솔루션 업체인 '알서포트', 통신·금융기업의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업체인 '효성ITX', 영상회의·네트워크 통합 업체인 '이씨에스' 등 다양한 IT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4].

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업종들도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항공 업종이다. 전 세계가 방역 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함으로써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예약취소가 줄을 이었고 자연스레 숙박시설 이용자 수도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바라볼 때, 일부 업종에서는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업종에서는 팬데믹 시대를 발판삼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업의 경영환경 전반(경영성과 및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하여 매출 상승이 보도되고 있는 정보통신업 기업을 대상으로 팬데믹 선언 전·후의 실제 경영성과를 비교하고 이러한 경영성과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한다. 또한, 단순한 이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익의 질 역시 팬데믹 선언 전·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종 언론에서 다루었던 정보통신업의 경영성과가 단순히 기업 자체의 성장 과정이 아닌 코로나 19라는 시기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시기에 발생한 경영성과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질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적인 사건에 기인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유례없는 팬데믹 환경에서 기업의 경영성과와 이익의 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염성 질병이 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차별점이 존재한다.

2. 선행연구

2.1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재무성과는 객관적 지표로서 경영성과를 연구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과지표이다(Hofer, 1983)[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재무성과는 차익과 차손을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과 비용으로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성과(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주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수 등(1999)[6]은 경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Clinch(1991), Kole(1991), Smith and Watts(1992)[7, 8, 9] 등은 보상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고성장 기업이 장기주식수익률을 사용하는 상여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욱 등(2019)[10]은 여성 근로자 비중을 중점으로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영향력을 찾지 못했다.

추철근(2020)[11]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조직문화(진취적 기업가정신과 시장 지향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으며, 윤태준과 이동명(2021)[12]은 대표자의 역량(매출채권 관리)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이정수 등(2021)[13]의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 정도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이익의 질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이란 경제적 이익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익의 변동성, 지속성, 예측가능성, 원천 등을 고려하여 이익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과 전망을 포함하는 이익의 속성을 말한다.

Francis et al.(2004)[14]는 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로 발생액의 질(accruals qua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이익지속성(persistence), 이익유연성(smoothness), 이익관리(earnings management), 적시성(timeliness),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 보수주의(conservatism)로 정의하였다.

이중 발생액의 질은 운전자본 발생액이 영업현금흐름에 대응될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발생액의 질은 당기 영업 발생액을 전기, 당기 및 차기의 영업현금흐름에 회귀시킨 모형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측정한다. 즉 당기 영업 발생액이 영업현금흐름에 대응되는 정도를 이용하여 발생액의 질을 측정한다.

다음은 발생액의 질을 이용하여 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선행연구이다. 나종길(2004)[15]과 손성규 등(2009)[16]을 꼽을 수 있다. 나종길(2004)은 발생액의 질에 따라 회계이익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발생액의 질이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유용한 대응치가 된다고 해석하였다. 손성규 등(2009)은 발생액의 질이 회계정보로서 유용한 가치를 갖는지를 추가반응과 거래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생액의 질은 재무적 발생액보다도 회계정보로써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용 등(2009)[17]은 발생액의 질이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발생액의 질이 커질수록 회계이익의 정보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액의 절댓값 크기나 감사품질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였으며, 다중공선성과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최규담 등(2016)[18]은 발생액의 질과 경영전략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발생액의 질은 경영전략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맞고 있다. 과거 이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꼽으라면 단연 외환위기일 것이다. 이 기간을 연구한 안상봉과 오희화(2017)[19]는 외환위기 전·후 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이익의 질의 차이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명확

하게 경영성과와 이익의 질이 이전 기간보다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박경락(2003)[20]은 외환위기 기간의 경영성과가 산업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보통신업의 경영성과는 이전 기간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1] 정보통신업 기업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경영성과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고재영 등(2010)[21]도 1991년~2007년을 표본 기간으로 하여, 이를 3구간으로 나뉜 뒤 각 구간의 이익의 질을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중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한 구간의 이익의 질이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지만, 이익의 질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재 상황이 외환위기 때의 경제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익의 질은 다른 기간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2] 정보통신업 기업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이익의 질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경영성과 관련 변수와 이익의 질 관련 변수이다. 먼저, 경영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은 기업이 속한 경영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지표[22]에는 경영개선,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등과 같은 영역이 포함되지만, 금융권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때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시장리스크 등의 지표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덕선 등(1991)[23]과 정기선(1992)[2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재무분석에 사용되는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비율을 경영성과 기준으로 이용한다. 각 지표의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수익성(ROA)} : \frac{\text{당기순이익}}{\text{기초자산}}$$

$$\text{성장성(growth)} : \frac{\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ext{유동성(liquidity)}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안전성(stability)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다음으로 이익의 질과 관련된 변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Dechow and Dichev(2002)[25]와 Francis et al.(2005)[26]의 모형을 사용한다.

Dechow and Dichev(2002)는 t기 발생액을 t-1, t, t+1의 현금흐름에 회귀분석한 후, 이때 나타나는 잔차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이익의 질(발생액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 모형을 간단하게 이익의 질을 측정할 수 있지만, 해당 모형에서 나타나는 잔차가 회계이익의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Mcnichols, 2002)[27], 이러한 모형의 한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Francis et al.(2005)의 모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QE1 변수로, Francis et al.(2005)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이익의 질은 QE2 변수로 설정하며, 각 변수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Dechow and Dichev(2002) 모형 : QE1]

$$ACC_{i,t} = \alpha_0 + \alpha_1 CF_{i,t-1} + \alpha_2 CF_{i,t} + \alpha_3 CF_{i,t+1} + \epsilon_{i,t}$$

[Francis et al.(2005) 모형 : QE2]

$$ACC_{i,t} = \alpha_0 + \alpha_1 CF_{i,t-1} + \alpha_2 CF_{i,t} + \alpha_3 CF_{i,t+1} + \alpha_4 \Delta REV_{i,t} + \alpha_5 PPE_{i,t} + \epsilon_{i,t}$$

여기서,

ACC_{i,t} : i기업의 t기 발생액(세전이익-영업현금흐름)

CF_{i,t-1} : i기업의 t-1기 영업현금흐름

CF_{i,t} : i기업의 t기 영업현금흐름

CF_{i,t+1} : i기업의 t+1기 영업현금흐름

△REV_{i,t} : i기업의 t기 매출액 변동

PPE_{i,t} : i기업의 t기 감가상각자산

모든 변수는 이분산성 통제를 위하여 기초자산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또한, CF_{i,t+1}기의 값은 2021년도 결산 재무자료가 없는 관계로 분기별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기의 방법으로 계산된 변수에 대하여 Levene's test를 실시하여 등분산 여부를 확인한 후,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다.

3.3 표본선정

Table 1. sample summary

Type	Sample
Among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KOSDAQ from 2017 to 2020,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with a settlement of account at the end of December	257
Companies missing data used for analysis	(31)
Full sample	226

Table 1은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요약을 나타낸다. 정보통신업 관련 기업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비교를 위하여 2020년과 그 이전 3년을 표본 기간으로 하였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정보통신업 관련 기업은 전체 257개 기업이다. 이중 코스피 기업이 40개, 코스닥 기업이 217개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가 누락된 기업을 코스피에서 1개, 코스닥에서 30개를 제거하여 최종 샘플을 226개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4년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

Table 2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ROA 평균은 -0.0049로 음수인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이것은 표본 기간 전체에 대한 통계량이므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간별 차이를 확인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ROA	growth	liquidity	stability	QE1	QE2
Mean	-0.0049	0.1209	6.6437	0.5909	0.1545	0.1543
Std.Dev.	0.1149	1.4067	44.2396	2.9226	0.1107	0.1106
N	904	904	904	904	904	904

Table 3.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ROA	growth	liquidity	stability	QE1	QE2
ROA	1					
growth	0.015	1				
liquidity	-0.001	0.002	1			
stability	0.189***	0.017	-0.021	1		
QE1	-0.484***	0.039**	-0.015	0.063***	1	
QE2	-0.482***	0.032*	-0.014	0.060***	0.993***	1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3은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익성을 의미하는 ROA는 안전성(stability)과 1% 유의수준에서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면 이익의 질의 대리변수인 QE1과 QE2는 ROA와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각각 -0.484와 -0.482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기간에 대한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ROA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간의 수익성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익성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것은 언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실증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4. Comparison of business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by one-way ANOVA analysis

Variable	2017-2019	2020	t-stat
	Mean	Mean	
ROA	-0.0068	0.0020	2.614***
growth	0.1363	0.0627	-1.211
liquidity	7.1347	4.7880	-2.142**
stability	0.5788	0.6367	0.459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간의 성장성(growth)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동성(liquidity)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기간이 유의수준 5% 내에서 평균적으로 -2.3467만큼 부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선된 경영성과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회수되고 있지 않거나, 상환 기간이 짧은 각종 정부 지원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성(stability)은 코로나19 이후 기간이 이전 기간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5. Comparison of quality of earnings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by one-way ANOVA analysis

Variable	2017-2019	2020	t-stat
	Mean	Mean	
QE1	0.1563	0.1477	-2.056**
QE2	0.1560	0.1478	-1.964**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5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기간 이익의 질에 대한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Dechow and Dichev(2002) 모형과 Francis et al.(2005)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QE1과 QE2는 코로나19 이전 기간보다 코로나19 이후 기간의 이익의 질이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QE1과 QE2는 각 모형에서 추정된 잔차의 표준편차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므로 표준편차가 작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지속성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이익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일기간 ROA가 상승한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로, 일시적인 수익성은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익의 질 또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업종별 경영성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언택트 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정보통신업 기업을 대상으로 팬데믹 선언 전·후 경영성과와 이익의 질에 대하여 기간별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성과 항목만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이후 기간이 1% 유의수준에서 개선되었으며, 유동성은 5% 유의수준에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간이 이전 기간보다 5% 유의수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보통신업 기업들이 ROA뿐만 아니라 이익 지속성도 동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업 기업의 이익 수준과 이익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은 약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은 종료되기 시작했지만, 눈앞의 위기를 넘겼던 기업들이 당장 부채를 상환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선별적인 기업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분에 대한 결산 자료만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

므로 향후 표본 기간과 업종을 확장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BC News. (2019.12.31.). article.
https://imnews.imbc.com/news/2019/world/article/5646382_29137.html.
- [2] Sedaily. (2020.01.08.). article.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KG98LES>.
- [3] ChosunBiz. (2020.01.28.). article.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27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4] Maeil Business News. (2020.03.23.). article.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296313>.
- [5] Hofer. (1983). ROVA: A New Measure for Assess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R. Lamb(ed.).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2, 43-55.
- [6] T. S. Kim & J. S. Chung & S. K. Chi. (1999). Th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Compensation Performance in Korean Listed Companies. *Korean accounting review*, 24(2), 87-116.
- [7] Clinch, G. (1991). Employee Compensation and Firm'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Spring), 59-78.
- [8] Kole, S.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Bundling of Compensation Pla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 [9] Smith, C. W. & R. Watts. (1992). The Investment Opportunity Set and Corporate Financing, Dividend, and Compensation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2(June), 263-292.
- [10] S. O. Park & S. T. Kim & H. J. Na. (2019).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Firm Value : Discriminatory Effects Depending on Corporate Culture. *Korean accounting review*, 44(5), 1-42.
- [11] C. K. Joo. (2020). The Influence of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on Management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oa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Market Orien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8), 119-131.
- [12] T. J. Yoon & D. M. Lee.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Representative Competency of SMEs on Accounts Receivable Manag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107-115.
- [13] J. S. LEE & M. J. Park & S. C. Jee & M. J. Park & D. S. Sohn. (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Use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n Corporate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complex us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7), 189-197.
- [14] Francis, J. R. Lafond, P. Olsson, and K. Schipper. (2004). Costs of Equity and Earnings Attributes. *The Accounting Review*, 79(4), 967-1010.
- [15] C. K. Nah. (2004). Informativeness of Discretionary Accruals Depending on Accruals Quality and Auditor Types. *Korean accounting review*, 29(1), 117-142.
- [16] S. K. Sohn & J. M. Goh & H. W. Paik. (2009). The Information Content of Accruals Quality The Information Content of Accruals 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7(2), 273-304.
- [17] S. Y. Lee. (2009). The Effects of Accruals Quality on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and Equity Value. *The Korea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0(4), 9-41.
- [18] G. D. Choi & K.S. Kim & H.S. Ryu. (2016). Business Strategy and Accruals Qua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25(3), 261-305.
- [19] S.B. An & H. H. Oh. (2017). A Study on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Profit and Business Performance Before/After Currency Crisi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9(2), 45-68.
- [20] K. L. Park. (2003). Comparis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Sales Promotion Expenses and Business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 153-186.
- [21] J. Y. Koh & C. H. Lee & W. S. Oh. (2010). An Empirical on the Changes of Earnings Quality in the Korea.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Fall Academic Presentation Contest, presentation paper, 219-238.
- [2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9). 2020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Manual.
- [23] D. S. Yoon. (1991). Hospital management practice. Jungwoo publisher.
- [24] K. S. Jung. (1992). Modern hospital management analysis and diagnosis. Moonhwi Book.
- [25] Dechow, P. M. & I. D.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35-59.
- [26] Francis, J & R. LaFond & P. Olsson & K. Schipper. (2005). The Market Pricing of Accruals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295-327.
- [27] McNichols. (2002).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1), 61-69.

박 수 경(Su-Gyeong Park)

[정회원]



- 2011년 8월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2019년 8월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경영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관심분야 : CSR, BTD, 기업신뢰, 조

사회피

· E-Mail : dorozor@daum.net